

# 송영길 우세 관측 속 막판까지 혼전...네거티브전 가열

민주당 5·2 전당대회 판세

홍영표·우원식 막판 맹추격

송 후보 약점 공략 역전 노력

권리당원 투표서 판가름 날 듯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판세는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아직까지 송영길 후보가 우세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우원식 후보가 막판 맹추격에 나서고 있어 최종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의원 표심은 세 후보가 별다른 차이 없이 나눠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송 후보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 송 후보가 당내 최다선(5선)이자 당권에 세 번째 도전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홍·우 후보에 앞서기 때문이다. 당의 최전선에 있는 대의원 투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일반시민 투표에서 송 후보의 인지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적인 판세가 대혼전 양상이라는 점도 송 후보의 인지도가 가지는 파괴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두 번의 고배를 마시며 다져왔던 전국 조직과 당의 텃밭인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송 후보의 강점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흐름도 송 후보의 보이지 않는 강점으로 꼽힌다.

당내 비주류인 송 후보를 지지하는 숨은 표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 최다선 의원인에도 리더십에 있어 안정감이 부족하고 정치적 친화력이 약한 부분은 송 후보의 최대 약점이다. 송 후보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에서 송 후보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타 후보에 비해 7~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송 후보의 경험과 역량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송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흐름이다. 어느 후보가 2위인지는 가능하기 힘들다. 두 후보는 송 후보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우 후보의 단일화는 전체 경선 구도가 대혼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홍 후보는 호남에서 일정 정도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당내 주류 진영의 지지세가 결집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홍 후보 측에서는 호남 당심 공략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여기에 4·7 재보선 참패 이후, 친문 진영에 대한 견제 흐름만큼 결속도 강해져 홍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놓고 있다.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큰 격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점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선거구단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 후보의 막판 추격 흐름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문제는 친문 진영의 결집이 이뤄지면 그만큼 이탈표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우 후보 측은 대의원 투표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70만 명 가운데 온라인 당원이 23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과거 투표율을 보면 일반 권리당원이 30% 중반에 그치는 반면, 온라인 권리당원은 70%에 이르고 있다.

우 후보 측에서는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불안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송 후보와 친문 패권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홍 후보 사이에서 합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우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 후보 측에서는 수도



###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

##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니다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9:30 장소 :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화·협력 다시 시작”...판문점선언 3주년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권리당원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후보가 최근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같은 입장을 소화하고, 정치편향 논란이 있는 방승인 김여중씨를 엄호한 것도 온라인 권리당원 등 강성 지지층 구애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우 후보 측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도 상당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막판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명 “호남 인재 중용하겠다” 한 목소리

호남과 동행 '서진정책' 강화 의지

국민의힘 자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호남을 향한 서진 정책의 강화를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인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은 김종민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호남과의 동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당 혁신을 위한 의지 표명인 한편, 보수 진영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자기 대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대선에서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복안에 대한 질문에 권성동 의원은 "호남 출신 인재들의 등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파격적으로 호남 출신을 등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광주 5·18 국립묘지 방문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정부 시절 호남 출신 인재

가 많았는데 호남 출신 인물들을 전면 배척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그들을 전면 배척하고 인재 풀을 구성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호남에서) 민심을 얻는 것이 우리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호남 출신 장관을 등용한 것처럼 호남 인사들의 정계 진출을 통해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호남에) 진정성이 전달되는 채널이 부실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호남 위원장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혁신 보수로 거듭난다면 자기 대선에서 호남 민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 힘이 호남에서 6~12%대의 지지율 보이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정세균 전 총리 사흘간 광주·전남 찾아 '대권 행보'

5·18 묘지 참배·민생현장 방문

내일 광주에서 '정치 역할' 특강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부터 사흘간 호남을 찾아 표밭을 다진다. 정 전 총리는 27일 광주에 도착, 이튿날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와 전남을 두루 돌며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젊은 유권자와 지역 경제인, 교육계 인사 등을

만나 '바다 민심'을 살피려다.

정 전 총리는 28일 국립 5·18묘역을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5월 정신을 강조한다. 총리 시절에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민주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할 만큼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또 29일에는 화순에 있는 항암면역치료제 개발기업 박셀바이옴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광주대학교를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젊은 유권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

로나시대 정치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는 게 정 전 총리 측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사임 후 전국을 순회하며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첫 행선지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과 부산을 돌며 민심을 청취했다. 부산에서는 상공회의소를 찾고, 항만·해운노조와 간담회를 가지며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이어 27일에는 대구를 다시 찾았다. 정 전 총리는 호남에 이어 30일에는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9주년 창간기념 **광주일보**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